

사람·새·습지- 우리가 공유하는 세계

- 1 **지자체명** : 헤이룽장성(黑龍江省)
- 2 **발표자명** : 판 추닝(FanChuNing)
(하얼빈시 스웨칭중학교 2학년)
(활동그룹: 중국 헤이룽장성 동북아시아지역 중학생 환경체험단)
- 3 **활동기간** : 2014 년부터
- 4 **활동장소** : 헤이룽장성
- 5 **활동명** : 사람·새·습지- 우리가 공유하는 세계
- 6 **활동을 시작한 경위**
어릴때부터 여러 습지에 가 본 경험이 있고 습지의 아름다운 경치가 자주 생각나서 습지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습지의 자연을 지키고 싶어졌다.

7 발표요지

① 활동내용

예전에 가본 적이 있는 습지에 다시 한번 가본다. 내 고향은 중국의 최북단에 위치해 나는 지금까지 많은 습지에 가본 적이 있다. 유명한 습지 치치하루자롱 자연보호구, 지시신카이호수습지, 타칭도르보드습지와 내몽골의 겐혜습지등에 발자취를 남겼다.

② 활동 감상

인류의 발전은 자연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사람 · 새 · 습지의 상호 의존하는 관계도 바꿀수 없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류의 문명과 자연의 조화를 지켜내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구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들로서는 자연계의 구조나 환경문제의 심각함에 대해서 파악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법률 · 법규를 지키고 또한 자발적으로 환경보전의 의무를 달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미래를 자신들의 손으로 파괴해 버리게 된다.

우리 중학생들은 아직 습지의 보호에 관한 정책이나 법률제정에 관여할 수 없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습지에 관한 지식을 홍보하거나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습지의 보호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서 습지보전에 관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유독 · 유해한 폐기물이나 오염수를 습지, 하천 또는 호수늪에 배출하지 않도록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